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최태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최태환

☐ 핸드폰번호: 010-2525-0000

☐ E-mail 주소: ceocode1@hanmail.net

윤병섭

☐ 핸드폰번호: 010-6273-6329

☐ E-mail 주소: yoonbs@svu.ac.kr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최태환¹⁾

윤병섭²⁾

요 약

본 연구는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 협력의 매개변수로 인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5개에 소속된 소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한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회수한 표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유효표본 41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공인이 새로운 경쟁우위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에 네트워크와 협력 등을 통해 자원의 새로운 조합과 창조를 이루고 경쟁상황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을 가져와 혁신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특성 → 협력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소공인 구성원들이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며,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존관계가 증가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이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환경불확실성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경영성과’는 경로계수가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공인과 소공인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업수준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나 초기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글 색인어: 소공인,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 네트워크, 협력, 경영성과

1)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

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I. 서론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화·개성화하면서 이를 따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제조업 환경은 소공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소공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공인은 자본집약적 산업과는 달리 숙련된 손기술과 적은 자본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연계성을 지니므로 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좌우한다.

그러나 소공인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소공인이 도심개발에 밀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소공인의 유·무형 경영 노하우, 기법, 기술들이 사라지고 있다. 안으로는 소공인의 경영성과가 경영주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등 전근대성을 갖고 있고, 창업이 용이한 반면 인력난 등 경영자원 기반이 취약해 도산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지용희 외, 1999).

소공인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해 네트워크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선진국은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가족기업 형태의 생계형 소공인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695호)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산재한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고용기회 창출 및 산업 인프라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태환과 윤병섭, 2015).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익을 담당하는 소공인의 역할에 비해 지원이 취약하다.

한편, 소공인 정책 못지않게 소공인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소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지 않았다. 소공인에 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소상공인진흥원, 2011; 남윤형, 2013; 중소기업중앙회, 2014), 지원 법률 검토보고서(이동근, 2014)가 있으며, 정책연구(조봉현, 2012; 최태환과 윤병섭, 2015), 뿌리산업 사례연구(김양태, 2015)가 있다. 지금까지 류건우 외(2001)가 주물소재 협동화사업의 파트너십을 실증연구한 이후 대개 소공인을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해 연구(빈봉식과 박정기, 2002; 박춘래 외, 2010; 김순태, 2013)함으로써 소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공인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영으로부터 벗어나 구성원 간의 힘을 모아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도록 소공인 연구 폭을 넓혀야 한다. 소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연구가 미흡하므로 실증연구가 보다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공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존 중소기업의 선행연구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 협력의 매개변수로 인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네트워크,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환경불확실성이 네트워크,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네트워크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섯째,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일곱째,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소기업, 중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변수를 도입해 얻은 결과가 향후 소공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정착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기대를 지니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정교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소공인의 성공과 생존의 관건이 되는 경영성과와 그 결정요인을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 네트워크, 협력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II. 선행연구

1.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은 저마다 각기 달라서(Ardichvili et al., 2003)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고 연구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고찰해 왔으나 그 결과는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은 성취동기(Hornaday and Aboud, 1971; Sexton and Bowman, 1984; 1985; Begley and Boyd, 1987; Amit et al., 1993; Baum, 1994), 위험감수성향(Sexton and Bowman, 1986; Begley and Boyd, 1987; Amit et al., 1993; Baum, 1994),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Sexton and Bowman, 1985; Begley and Boyd, 1987)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McClelland(1965)는 성취동기를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신의 탁월한 기준과의 경쟁, 독특한 업적, 장기 목표에의 자아관여 등과 관련되어 유발되는 감정이라 하였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요행을 기다리는 데 관심이 없고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보다 도전적인 흥미를 가진다. 모험가적 특성을 지니지만 그 모험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Frederick et al., 2007)을 추구한다.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성향이다(Sexton and Bowman, 1986; Koh, 1996). 위험감수성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Brockhaus Sr., 1980).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보다 편안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Sitkin and Weingart, 1995). 위험감수성에 대해 Dess et al.(2009)은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

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tolerance of ambiguity)의 모호함은 생소함, 복잡성 등에서 나오며, 모호함에 대한 수용력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Sexton and Bowman, 1985). 또한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은 지각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하는데, 창업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2.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불확실성이란 고객, 경쟁자, 기술, 제품 등 기업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의 폭,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변화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Daft, 2015). 기업환경은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환경은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부와 내부의 환경불확실성은 역동성, 적대성, 예측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동적인 경영환경 하에 있는 기업은 외부지향 및 혁신적 경영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Crant, 2000). 기업의 생존에 대한 위협, 치열한 가격 경쟁, 제품의 품질과 신규성에 관한 경쟁 등의 정도가 불안정할수록 생산비용이나 시장차별화 등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김영배와 송광선, 1992; Kim et al., 1993).

적대성은 조직환경에서의 경쟁의 정도나 핵심산업의 침체 혹은 성장의 정도에 따라 기업이 처한 위협의 정도를 의미한다(Miller and Friesen, 1983). Covin and Slevin(1990)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성패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환경의 차원을 적대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환경 적대성이 소규모 기업에게 있어 위협적인 이유가 제한된 자원과 자원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Miller and Friesen(1982, 1983), Miller and Lee(2001) 등은 환경불확실성으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만약 기업이 고객의 욕구변화나 경쟁자의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위협을 부담하면서까지 혁신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Miller and Friesen, 1983). 그러나 기업을 둘러싼 각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조직은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면서라도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적 열정과 노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Chakravarthy, 1982).

Zahra(1991)는 외부 환경의 이질성, 적대성, 역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기업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증가함을 주장한다. Lumpkin and Dess(1995)도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쟁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사내 기업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효과는 지리적 집중으로 인해 클러스터 내 기업이 혁신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의 증대 효과를 들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역총생산, 기업 생산성 및 고용수준이 증가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의 더 높은 혁신성과 창출을 발견하였다(Henderson, 1986; 2003; Squicciarini, 2008; Yang et al., 2009; 김성태와 노근호, 2004). 클러스터와 같은 시스템에서의 핵심적 개념은 관계이며(Nelson, 1993; Guia et al., 2006), 관계는 조직들 간의 지식공유나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관점을 채택한 많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변환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Porter(1990, 1998)가 국가경쟁력과 산업클러스터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각종 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클러스터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김정호, 2004; 김종우와 이연택, 2010). 국내에서 클러스터 관점에 입각하여 클러스터 특성들과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김종우와 이연택, 2010; 최병훈과 조현석, 2010; 문진주와 이기동, 2011; 서리빈 외, 2012; 조성의, 2012).

4.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간 네트워크 특성은 구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Watson(2007)은 네트워크를 규모와 빈도로 분류하고 있다. 원종하와 이도화(2001)는 네트워크 규모, 강도를 들고 있으며 박우성과 박재용(2005)은 네트워크 크기, 다양성, 강도, 신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네트워크를 크기, 다양성 및 강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트워크 크기는 특정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로 정의되고 있다(박우성과 박재용, 2005). 네트워크 크기와 성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atila and Mang(1999), Baum et al.(2000) 등은 네트워크 크기가 크면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접근도가 더 커지게 되므로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네트워크 다양성은 기업이 네트워크 원천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범위로 간주된다. Zhao and Aram(1995)은 중국의 기술기반 신생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은 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Koka and Prescott(2002) 역시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네트워크 강도는 참여기업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들 간에 교류 빈도가 높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이러한 강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Uzzi, 1997). Jones et al.(1997)은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연결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간의 자원 교환이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Hansen(1995) 또한 기업 간 접촉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국내의 정동섭과 정문섭(2005)도 네트워크 강도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5. 소공인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비하여 수직적 의존관계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한 기업이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간에 잘 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에 의해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Lambert et al., 1999; Frohlich and Westbrook, 2001; Wisner, 2003). 협력 요인은 의사소통(Barry and Stewart, 1997; 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상호간 지원(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응집력(Shamir, 1990; Hoegl and Gemuenden, 2001)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을 의미한다. 상호간 지원은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에 계속 소속해 있도록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집단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응집력은 결국 집단구성원들이 얼마나 욕구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소기업의 구성원들이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며,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존관계가 증가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이 가능할 때 경영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집단수준에서 검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응집력은 집단유능감(Shamir, 1990)과 의사소통(Barry and Stewart, 1997)을 향상시킴으로써 프로젝트성과증진(Keller, 1986), 팀 생존능력 증진(Barrick et al., 1998) 및 집단성과 향상(Barry and Stewart, 1997; Podsakoff et al., 1997; Barrick et al., 1998; 김남현 외, 2001)을 가져다준다.

6.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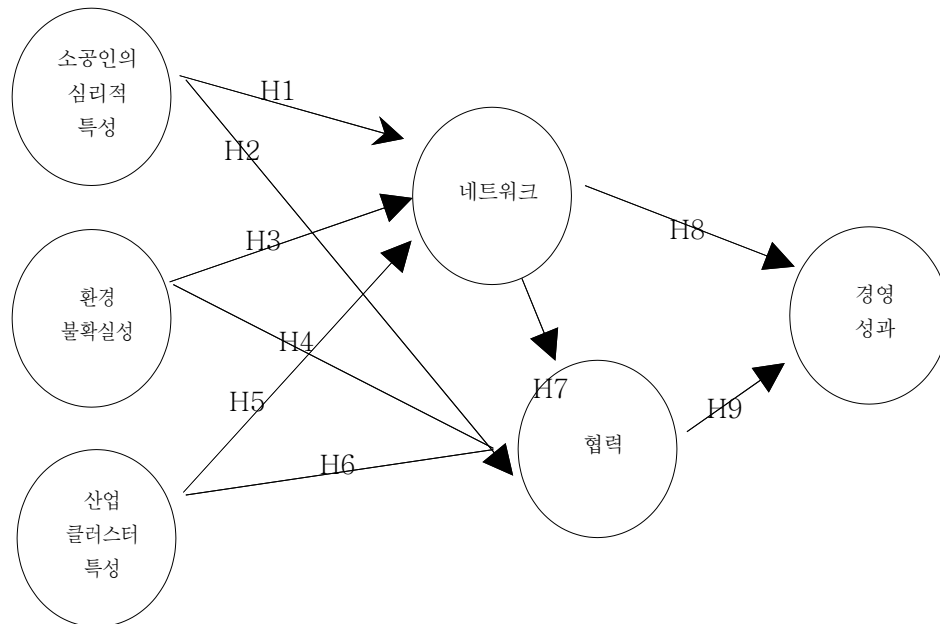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소공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소공인은 소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경영을 수행하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가 사용한 변수를 적용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는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사용한다. 최고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는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공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로하여 종속변수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측정한다.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 협력 등의 매개변수를 경로하여 경영성과에 이를 때 매개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면 소공인이 경영성과 증진에 매개변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2.1. 소공인의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

2.1.1.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는 성취동기(Sexton and Bowman, 1984; 1985), 위험감수성향(Sexton and Bowman,

1986; Baum, 1994),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Sexton and Bowman, 1985; Begley and Boyd, 1987) 등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등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등 심리적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는 역동성(Crant, 2000), 적대성(Covin and Slevin, 1990), 예측가능성(Miller and Friesen, 1982; 1983) 등 외부와 내부의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쟁우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원의 새로운 조합과 창조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경쟁상황에 준비해야 한다(Guth and Ginsberg, 1990). 본 연구는 소공인이 겪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불확실성, 즉 역동성, 적대성,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클러스터의 집적효과 존재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역총생산, 기업 생산성 및 고용수준이 증가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의 더 높은 혁신성과 창출을 발견하였다(Henderson, 1986; 2003; Squicciarini, 2008; Yang et al., 2009; 김성태와 노근호, 2004). 그리고 클러스터 특성인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에 의해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는다(Porter, 1998). 본 연구는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 즉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등에 따라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가설 6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2.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의 크기, 다양성, 교류의 강도는 자원이 부족한 소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잘 되더라도 개별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새로운 경쟁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당사자들이 공동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는 과정(Yilmaz and Hunt, 2001)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간에 잘 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Lambert et al., 1999; Frohlich and Westbrook, 2001; Wisner, 2003). 본 연구는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7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3. 소공인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3.1.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공인은 보완자원의 획득 및 활용을 통해 기술상업화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한다. 네트워크의 크기(Watson, 2007), 다양성(Zhao and Aram, 1995), 교류의 강도(Uzzi, 1997; Jones et al., 1997)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순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용절감노력, 작업효율성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8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3.2. 소공인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협력 요인은 의사소통(Barry and Stewart, 1997; 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상호간 지원(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응집

력(Shamir, 1990; Hoegl and Gemuenden, 2001)을 들 수 있다. 응집력은 집단유능감(Shamir, 1990)과 의사소통(Barry and Stewart, 1997)을 향상시킴으로써 프로젝트성과증진(Keller, 1986), 팀 생존능력 증진(Barrick et al., 1998) 및 집단성과 향상(Barry and Stewart, 1997; Podsakoff et al., 1997; Barrick et al., 1998; 김남현 외, 2001)을 가져다준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협력이 매출증가율, 수익성, 투자수익률, 비용절감노력, 작업효율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9	소공인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4. 소공인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2.4.1.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는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등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성장성 비율인 매출증가율, 수익성 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용절감노력, 작업효율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0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은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4.2.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불확실성인 역동성, 적대성, 예측가능성이 소공인의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성장성 비율인 매출증가율, 수익성 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용절감노력, 작업효율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1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은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2.4.3.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에 맞춘 지리적 집중은 클러스터 내 기업이 혁신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성장성 비율인 매출증가율, 수익성 비율인 매출액순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용절감노력, 작업효율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2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은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독립변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

3.1.1. 심리적 특성 변수

본 연구의 심리적 특성 변수는 성취동기(Sexton and Bowman, 1984; 1985), 위험감수성향(Sexton and Bowman, 1986; Baum, 1994),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Sexton and Bowman, 1985; Begley and Boyd, 1987)이다. 성취동기는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신의 탁월한 기준과의 경쟁, 독특한 업적, 장기 목표에의 자아관여 등과 관련되어 유발되는 감정이다(McClelland, 1965). 위험감수성향은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도전(Sexton and Bowman, 1986; Koh, 1996),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Dess et al., 2009),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이다.

3.1.2. 환경불확실성 변수

본 연구의 환경불확실성 변수는 역동성(Crant, 2000), 적대성(Covin and Slevin, 1990), 예측가능성(Miller and Friesen, 1982; 1983)이다. 역동성은 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지식, 정보 및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적대성은 생각·계획 등에서 상대가 자기편의 이익에 서주지 않는 데 대한 강한 반대를 의미하며, 자원 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feffer and Salancik, 1978). Covin and Slevin(1990)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의 성과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환경의 차원을 적대성으로 보았다. 예측가능성은 균일성, 일관성,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한다. 기업을 둘러싼 각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조직은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적 열정과 노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Chakravarthy, 1982). 소공인은 기존 기업들과 비교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원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우발적 사건에 의해 성과가 많이 좌우될 수 있다(Low and MacMillan, 1988; Cooper, 1993; Woo et al., 1994).

3.1.3. 산업클러스터 특성 변수

본 연구의 산업클러스터 특성 변수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이다. 국가경쟁력 순위 결정요인인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Porter, 1998). 요소조건은 질 좋은 생산요소를 말한다. 노동, 토지, 천연자원, 자본, 하부구조 등의 부존량과 투입기술의 요소이다. 생산요소의 사용 및 조달방법의 효율성 요소이다. 수요조건은 소비시장의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비욕구가 크고 까다로운 소비자가 많은 경우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소요의 규모가 타지에 비하여 자체시장이 큰 경우 경쟁이 유리하다. 관련산업은 시장에 제품공급자와 최종소비자가 동시에 위치할 때, 제품혁신에 필요한 정보 유통이 빠르게 되므로 유리하다.

3.2. 매개변수: 네트워크와 협력

3.2.1. 네트워크 변수

본 연구의 네트워크 변수는 네트워크의 크기(Watson, 2007), 다양성(Zhao and Aram, 1995), 교류의 강도(Uzzi, 1997; Jones et al., 1997)이다. 네트워크 크기는 특정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이다(박우성과 박재용, 2005). 네트워크 다양성은 기업이 네트워크 원천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범위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는 참여기업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들 간에 교류 빈도가 높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이러한 강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2.2. 협력 변수

본 연구의 협력 변수는 의사소통(Barry and Stewart, 1997; 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상호간 지원(Mathieu et al., 2000; Hoegl and Gemuenden, 2001), 응집력(Shamir, 1990; Hoegl and Gemuenden, 2001)이다. 의사소통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을 의미한다. 상호간 지원은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에 계속 소속해 있도록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집단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응집력은 결국 집단구성원들이 얼마나 욕구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3. 종속변수: 경영성과

본 연구의 경영성과 변수는 인지적 재무성과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인지된 매출액증가율, 인지된 매출액순이익률, 인지된 투자수익률, 인지된 비용절감노력, 인지된 작업효율성 등으로 평가한다. 소공인이 인지하는 최근 3년 간 경영성과 수준을 측정한다. 매출액증가율은 전년 대비 당년 매출액의 증가율로 계산해 최근 3년 평균을 산정한다. 수익성은 이익이 발생하는 성질이다.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성과, 즉 손익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성과의 원인을 분석, 검토하는 수익성분석을 행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내부 및 외부이용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익성비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가 된다.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4.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일반사항을 설문한다. 독립변수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 환경불확실성과 관련한 변수, 산업클러스터 특성과 관련한 변수로 구성한다. 매개변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변수, 협력과 관련한 변수로 구성한다. 일반사항을 제외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측정항목은 Likert(1961)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한 리커트(Likert, 1961)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695호, 제정 2014.05.28., 시행 2015.05.29.) 제15조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표 2> 참조). 정부는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공인의 숙련기술 계승·발전,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선행연구	설문문항수
독립 변수	소공인 심리적 특성	성취동기	Sexton and Bowman(1984; 1985; 1986), Begley and Boyd(1987), Baum(1994)	3
		위험감수성		4
		모호함의 인내		4
	환경 불확실성	역동성	Miller and Friesen(1982, 1983), Covin and Slevin(1990)	4
		적대성		3
		예측가능성		3
	산업 클러스터 특성	요소조건	Porter(1998)	3
		수요조건		3
		관련산업		3
매개 변수	네트워크	크기	Watson(2007)	3
		다양성	Zhao and Aram(1995)	3
		교류의 강도	Uzzi(1997), Jones, Hesterly and Borgatti(1997)	3
	협력	의사소통	Barry and Stewart(1997), Mathieu, Heffner, Goodwin, Salas and Cannon- Bowers(2000) Hoegl and Gemuenden(2001)	3
		상호간 지원	Mathieu, Heffner, Goodwin, Salas and Cannon- Bowers(2000) Hoegl and Gemuenden(2001)	3
		응집력	Shamir(1990), Hoegl and Gemuenden(2001)	3
종속 변수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Gupta(1987), Covin and Slevin(1990)	1
		매출액순이익률		1
		투자수익률		1
		비용절감노력		1
		작업효율성		1
일반문항	법인유무	Lamont(1972)	1	
	직장경험		1	
	창업유무		1	
	경영연수	Sandberg and Hofer(1987)	1	
	성	Birley(1988)	1	
	연령	Carlsson and Karlsson(1970)	1	
	업종	Siggelkow(2001)	1	
	설립연도(업력)		1	
	종업원 수	Hall, Jaffe and Trajtenberg(2005)	1	
	년간 매출액	Leiponen and Helfat(2010)	1	
	설문 문항 수			

설문조사 실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통하거나 소공인의 메일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횟수와 시기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예비조사 2회와 본조사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 기계금속 종사자와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 설문지 100부를 배포하여 56부를 회수하여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종사자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자동차부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여 129부를 회수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실무진, 소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충분히 토의한 후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5개에 소속된 소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문지 600부를 배포, 427부를 회수하고 통계처리가 가능한 유효표본 41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2의 AMOS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분야	기관명
1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2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4	서울	용산구(청파동)	의류봉제	(사)서울봉제산업협회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6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죽신발	(재)서울산업진흥원
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8	서울	중구(쌍림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9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1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재)시흥산업진흥원
12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13	인천	동구(송현동)	기계금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15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7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18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19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20	대전	동구(정동)	인쇄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1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재)광주디자인센터
22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24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사)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25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주 1) 기존지구는 연번 1, 8, 9, 10, 13, 14, 17 등 7개이며, 신규지구는 그 외 18개임.

2) 강원,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아직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음.

자료: 중소기업청(2015. 4. 14).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표 3>은 기술통계량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법인유무	개인회사	279	66.8	종업원수	10명 미만	55	13.2
	주식회사	108	25.8	업종	금형	96	23.0
	기타	31	7.4		주조	42	10.0
직장경험	있다	126	30.1		소성가공	36	8.6
	없다	292	69.9		용접	51	12.2
창업유무	창업	262	62.7		표면처리	48	11.5
	가업승계	156	37.3		열처리	53	12.7
경영연수	1-10년	67	16.0		기타	92	22.0
	11년-20년	105	25.1	설립연도	1980년대 이전	81	19.4
	21년-30년	132	31.6		1980년대	102	24.4
	31년 이상	114	27.3		1990년대	148	35.4
성	남	316	75.6		2000년대	76	18.2
	여	102	24.4		2010년대 이후	11	2.6
연령	30대	25	6.0	매출액	5억 미만	65	15.5
	40대	96	23.0		10억 미만	107	25.6
	50대	182	43.5		30억 미만	132	31.6
	60대 이상	115	27.5		50억미만	96	23.0
종업원수	3명 미만	149	35.6		50억이상	18	4.3
	5명 미만	214	51.2	계		418	100.0

2. 측정모형 검증

2.1. 신뢰성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본 연구는 선정한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PSY), 환경불확실성(ENV), 산업클러스터 특성(CLU), 네트워크(NET), 협력(COO), 경영성과(BRE) 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계수가 Nunnally and Bernstein(1994)가 제시한 0.70이하로 나타나는 측정항목을 제거한 후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0.7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타당하게 보여주고 있다. 측정항목을 제거한 후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타당하게 보여주는 측정도구는 50문항이 되었다(<표 4> 참조).

<표 4> 신뢰성 분석 및 설문지 최종 문항 수

변수		초기 문항 수	제거 문항 수	문항 제거후 신뢰성	최종 문항 수	변수		초기 문항 수	제거 문항 수	문항 제거후 신뢰성	최종 문항 수
소공인 심리적 특성 (PSY)	성취동기	3		0.8012	3	협력 (COO)	의사소통	3		0.8147	3
	위험감수성	4	1		3		상호간 지원	3			3
	모호함의 인내	4	1		3		응집력	3			3
환경 불확실성 (ENV)	역동성	4	1	0.7819	3	경영성과 (BRE)	매출액증가율	1		0.7769	1
	적대성	3			3		매출액순이익률	1			1
	예측가능성	3			3		투자수익률	1			1
산업 클러스터 특성 (CLU)	요소조건	3		0.8404	3		비용절감노력	1			1
	수요조건	3			3		작업효율성	1			1
	관련산업	3			3	문항수		53	3		50
네트워크 (NET)	네트워크의 크기	3		0.7928	3						
	네트워크의 다양성	3			3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	3			3						

2.2. 타당성 분석

2.2.1.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하며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한 Varimax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식을 이용하였다. 소공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의 값은 0.808로서 요인분석에 의한 변수선택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르렛(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786.542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모두 3개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에 의해 각 요인과 측정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공인 심리적 특성의 분산비율 51.277%, 환경불확실성의 분산비율 20.188%, 산업클러스터의 분산비율 12.415%로 나타났다.

<표 6>은 소공인의 매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의 값은 0.749로서 요인분석에 의한 변수선택이 적당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바르렛(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686.542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소공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항목		성분		
		심리적 특성 (요인 1)	환경불확실성 (요인 2)	산업클러스터 (요인 3)
I-X8	급변 환경이 흥미있는 인생	0.882	0.130	0.152
I-X9	모험적인 사람이 잘됨	0.812	0.051	0.109
I-X5	불확실한 상황 대처 정도	0.797	0.293	0.079
I-X6	타인의 지도 횟수	0.783	0.211	0.124
I-X10	행복한 삶은 같은 일을 함	0.781	0.048	0.194
I-X4	위험 있는 사업 선호도	0.761	0.229	0.049
I-X3	업계 중간위치의 만족도	0.758	0.151	0.185
I-X2	타기업과 비교시 노력 정도	0.744	0.173	0.141
I-X1	어려운 문제 해결 흥미정도	0.738	0.217	0.183
II-X9	소비자 기호가 변화 정도	0.241	0.849	0.193
II-X6	법/정치/경제적 규제	0.101	0.844	0.173
II-X5	영업활동에 경쟁자의 영향	0.191	0.798	0.117
II-X3	제품 기술 변화 빈도	0.125	0.789	0.298
II-X7	경쟁의 정도	0.191	0.782	0.251
II-X10	영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	0.185	0.769	0.172
II-X8	주요 경쟁자들의 행동	0.283	0.764	0.029
II-X2	제품의 진부화 정도	0.245	0.762	0.221
II-X1	마케팅 방법의 변화 필요성	0.216	0.735	0.169
III-X8	특정산업의 경쟁력	0.021	0.293	0.841
III-X3	생산요소의 사용 효율성	0.251	0.084	0.824
III-X1	부존자원이 풍부	0.049	0.172	0.819
III-X7	제품혁신 정보유통이 빠름	0.169	0.237	0.791
III-X9	높은 혁신성과 창출	0.098	0.207	0.785
III-X5	큰 자체시장규모	0.109	0.133	0.742
III-X2	투입기술이 풍부	0.179	0.078	0.741
III-X4	까다로운 소비자	0.252	0.166	0.736
III-X6	공급자, 소비자 동시 위치	0.194	0.185	0.714
고유치		5.131	2.020	1.765
총표본 분산비율		51.277	20.188	12.415
KMO		0.808		
Bartlett검정		Chi Square=786.542, df=52		
유의 확률		.000		

<표 6>과 같이 소공인의 경쟁력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은 모두 2개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에 의해 각 요인과 측정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인 1>은 네트워크에 관한 요인이며 분산비율은 52.334%, <요인 2>는 협력에 관한 요인으로 분산비율은 25.848%로 나타났다.

<표 6> 소공인의 매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항목		성분	
		네트워크 (요인 1)	협력 (요인 2)
IV-X6	정부, 대기업과 협력	0.824	0.244
IV-X8	외부업체와 심리적 공감대 형성	0.812	0.188
IV-X3	정부, 대기업 참여 네트워크 수	0.803	0.270
IV-X2	산학연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수	0.783	0.203
IV-X1	경쟁사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수	0.767	0.207
IV-X4	동종업계 경쟁사와 교류	0.761	0.109
IV-X5	경영활동에 산학연 협력	0.754	0.123
IV-X7	외부업체와 교류하는 시간	0.751	0.199
IV-X9	외부업체에 친밀감과 신뢰	0.749	0.220
V-X4	힘을 합쳐 업무목표 달성	0.138	0.847
V-X3	서로 밀접한 업무 연계	0.081	0.843
V-X9	회사 직원들 간 일체감	0.262	0.817
V-X2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0.054	0.794
V-X1	동료들과 업무관련 조율 필요	0.210	0.758
V-X5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0.122	0.742
V-X6	의견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임	0.147	0.738
V-X7	앞으로도 현재 직원들과 유사	0.236	0.721
V-X8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	0.206	0.711
교유치		4.898	2.901
총표본 분산비율		52.334	25.848
KMO		0.749	
Bartlett검정		Chi Square=686.542, df=52	
유의 확률		0.000	

2.2.2.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다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 개념 등에 대한 단일 차원성 확인을 위해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λ)을 측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이전 분석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관관계가 0.3 이하이거나 동일개념을 내포하지 않은 변수는 항목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적합하지 않은 변수는 제거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구성 개념의 최적상태는 다음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연구단위와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구조모형이 제공하는 적합도 지표는 χ^2 (카이제곱 통계량), 기초적합지수(goodness-of-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원소 간 평균제곱잔차(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표준화된 적합지수(normed-fit index: NFI), 비표준화적합지수(non-normed index: N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fit index: CFI)가 있다.

<표 7>은 소공인의 내·외부 특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8>은 소공인의 경쟁력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며, <표 9>는 전체 모형의 적합도 평가이다. <표 9>를 보면 연구단위의 적합도 지수 중 카이제곱 통계량(χ^2)은 624.806, p-value는 0.146, 원소 간 평균제곱 잔차(RMR)는 0.016, 기초적합지수(GFI)는 0.992, 조정적합지수(AGFI)는 0.984,

표준화된 적합지수(NFI)는 0.993, 비교적합지수(CFI)는 0.989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소공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표준화 계수요인 부하량
소공인 심리적 특성(PSY)						
I-X8	급변 환경이 흥미있는 인생	1.000(고정)	-	-	0.000	0.718
I-X9	모험적인 사람이 잘됨	0.868	0.165	8.527	0.000	0.725
I-X5	불확실한 상황 대처 정도	0.796	0.144	7.758	0.000	0.684
I-X6	타인의 지도 횟수	0.814	0.196	7.539	0.000	0.702
I-X10	행복한 삶은 같은 일을 함	0.835	0.175	7.187	0.000	0.711
I-X4	위험 있는 사업 선호도	0.784	0.177	7.801	0.000	0.681
I-X3	업계 중간위치의 만족도	0.798	0.121	8.225	0.000	0.682
I-X2	타기업과 비교시 노력 정도	0.894	0.148	8.246	0.000	0.764
I-X1	어려운 문제 해결 흥미정도	0.788	0.167	8.287	0.000	0.675
환경불확실성(ENV)						
II-X9	소비자 기호가 변화 정도	1.000(고정)	-	-	0.000	0.801
II-X6	법/정치/경제적 규제	1.081	0.132	8.288	0.000	0.808
II-X5	영업활동에 경쟁자의 영향	1.043	0.155	7.954	0.000	0.802
II-X3	제품 기술 변화 빈도	0.887	0.173	7.949	0.000	0.784
II-X7	경쟁의 정도	0.765	0.184	7.687	0.000	0.726
II-X10	영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	0.854	0.165	7.427	0.000	0.776
II-X8	주요 경쟁자들의 행동	0.901	0.125	7.899	0.000	0.801
II-X2	제품의 진부화 정도	0.955	0.181	7.262	0.000	0.808
II-X1	마케팅 방법의 변화 필요성	0.927	0.132	7.783	0.000	0.775
산업클러스터 특성(CLU)						
III-X8	특정산업의 경쟁력	1.000(고정)	-	-	0.000	0.831
III-X3	생산요소의 사용 효율성	1.093	0.117	8.735	0.000	0.842
III-X1	부존자원이 풍부	0.971	0.151	8.001	0.000	0.798
III-X7	제품혁신 정보유통이 빠름	0.998	0.162	8.035	0.000	0.809
III-X9	높은 혁신성과 창출	0.853	0.185	8.254	0.000	0.752
III-X5	큰 자체시장규모	0.944	0.147	8.626	0.000	0.811
III-X2	투입기술이 풍부	0.935	0.156	8.270	0.000	0.789

<표 8> 소공인의 매개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표준화 계수요인 부하량
네트워크(NET)						
IV-X6	정부, 대기업과 협력	1.000(고정)	-	-	0.000	0.783
IV-X8	외부업체와 심리적 공감대 형성	1.114	0.164	9.527	0.000	0.746
IV-X3	정부, 대기업 참여 네트워크 수	1.005	0.171	7.667	0.000	0.758
IV-X2	산학연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수	0.928	0.158	7.168	0.000	0.716
IV-X1	경쟁사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수	0.965	0.163	8.005	0.000	0.721
IV-X4	동종업계 경쟁사와 교류	0.919	0.129	7.681	0.000	0.738
IV-X5	경영활동에 산학연 협력	0.994	0.143	7.860	0.000	0.728
IV-X7	외부업체와 교류하는 시간	0.901	0.136	7.685	0.000	0.718
IV-X9	외부업체에 친밀감과 신뢰	0.895	0.153	7.982	0.000	0.729
협력(COO)						
V-X1	동료들과 업무관련 조율 필요	1.000(고정)	-	-	0.000	0.849
V-X2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0.885	0.138	7.542	0.000	0.746
V-X3	서로 밀접한 업무 연계	0.820	0.178	7.782	0.000	0.739
V-X4	힘을 합쳐 업무목표 달성	0.769	0.165	7.619	0.000	0.821
V-X5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0.881	0.181	7.882	0.000	0.779
V-X6	의견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임	0.781	0.179	7.284	0.000	0.819
V-X7	앞으로도 현재 사원들과 유사	0.727	0.165	7.289	0.000	0.738
V-X8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	0.798	0.158	8.014	0.000	0.805
V-X9	회사 사원들 간 일체감	0.801	0.148	7.758	0.000	0.738
경영성과(BRE)						
VI-X1	매출액증가율	1.000(고정)	-	-	0.000	0.721
VI-X2	매출액순이익률	0.977	0.163	7.851	0.000	0.862
VI-X3	투자수익률	0.854	0.172	7.883	0.000	0.726
VI-X4	비용절감노력	0.866	0.136	7.979	0.000	0.776
VI-X5	작업효율성	0.763	0.142	7.863	0.000	0.749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분	χ^2	p	RMR	GFI	AGFI	NFI	CFI	TLI	Delta 2
모형의 적합도 평가	624.806	0.146	0.016	0.992	0.984	0.993	0.989	0.994	0.998

또한 척도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의 구성 신뢰도는 기준치인 0.7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AVE도 기준치인 0.50 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는 다른 여러 기준의 적합지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다른 통계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Bollen and Long, 1993), 그에 따른 다른 적합지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tucker-lewis Index(TLI)은 0.994, Delta 2 IFI(incremental fit index)는 0.998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상관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열척도로 측정한 자료에서 사용하는 spearma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spearman 상관관계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한 서열이 같은 경우 가운데 서열을 부여하는 것으로 두 변수가 모두 등위로 표시되었거나 연속자료를 등위로 변환한 서열변수인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pearson r의 변형으로 등위의 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등위차 상관관계수 r_s 라 부르기도 하며, 점수의 분포가 극단적 분포일 때도 사용된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V-11>과 같다. 연구가설로 설정된 산업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협력 사이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p < .001$)를 나타내었다. 또한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하여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큰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AVE 값이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변수는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상관분석

구분	PSY	ENV	CLU	NET	COO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PSY)	1				
환경불확실성(ENV)	.484***	1			
산업클러스터 특성(CLU)	.412***	.108	1		
네트워크(NET)	.368**	.185	.452***	1	
협력(COO)	.418***	.288*	.178	.522***	1

주 1)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PSY):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의 인내, 환경불확실성(ENV): 역동성, 적대성, 예측가능성, 산업클러스터 특성(CLU):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네트워크(NET): 네트워크의 크기, 네트워크의 다양성, 네트워크 교류의 강도, 협력(COO): 의사소통, 상호간 지원, 응집력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4.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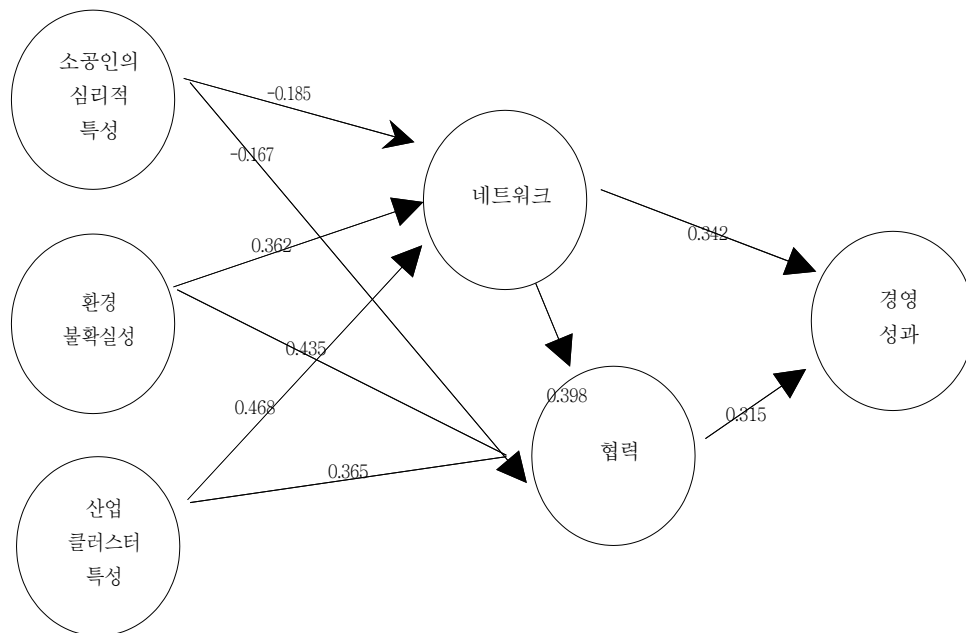
4.1. 경로분석(경영성과)

본 연구는 두 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한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2의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체적인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규명하였다. 경로분석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가설 5, 가설 6), 매개변수가 종속변수(가설 7),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가설 8, 가설 9)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경영성과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경로분석(경영성과)

순번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검증 결과
1	심리적 특성 → 네트워크	-0.185	0.135	-1.063	0.389	기각
2	심리적 특성 → 협력	-0.167	0.161	-0.945	0.406	기각
3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0.362***	0.138	3.311	0.000	채택
4	환경불확실성 → 협력	0.435***	0.156	3.998	0.000	채택
5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0.468***	0.165	4.205	0.000	채택
6	산업클러스터 특성 → 협력	0.365***	0.148	3.318	0.000	채택
7	네트워크 → 협력	0.398***	0.144	3.582	0.000	채택
8	네트워크 → 경영성과	0.342***	0.157	3.091	0.000	채택
9	협력 → 경영성과	0.315***	0.163	2.906	0.002	채택
10	심리적 특성 → 경영성과	-0.175	0.142	-0.981	0.396	기각
11	환경불확실성 → 경영성과	0.248*	0.144	2.205	0.066	채택
12	산업클러스터 특성 → 경영성과	0.235*	0.165	2.006	0.081	채택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경로분석(경영성과)

첫째,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각각 -0.185($p \geq 0.100$), -0.167($p \geq 0.100$)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 즉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 등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 새로운 경쟁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네트워크와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소공인 사이 상이한 활동의 연계 형성은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공인 최고경영자의 주도적인 경영환경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저마다 각기 달라서 (Ardichvili et al., 2003)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고 연구자 나름대로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고찰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각각 0.362($p \leq 0.010$), 0.435($p \leq 0.01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소공인이 겪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불확실성, 즉 역동성, 적대성, 예측가능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 경쟁자, 기술, 제품 등 기업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의 변화 폭, 변화 속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의미하는 환경불확실성은 역동성(Crant, 2000), 적대성(hostility)(Covin and Slevin, 1990), 예측가능성(Miller and Lee, 2001)을 포함하고 있다. 소공인은 제한된 자원과 자원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에 환경 적대성이 위협적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곤경에 처해진다(Covin and Slevin, 1990). 본 연구 결과 소공인은 새로운 경쟁우위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에 네트워크와 협력 등을 통해 자원의 새로운 조합과 창조를 이루고 경쟁상황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uth and Ginsberg, 1990).

셋째,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각각 0.468($p \leq 0.010$), 0.365($p \leq 0.01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5]과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 즉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을 가져와 혁신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Henderson, 1986; 2003; Squicciarini, 2008; Yang et al., 2009; 김성태와 노근호, 2004). 클러스터 특성의 하위차원인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 경쟁여건 및 기업전략 등 지역의 여건들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 Porter(1998a)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0.398($p \leq 0.01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소공인은 상호관계의 증대를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공동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는 과정(Yilmaz and Hunt, 2001)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간에 잘 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음(Frohlich and Westbrook, 2001; Lambert et al., 1999; Wisner, 2003)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0.342($p \leq 0.01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공인은 보완자원의 획득 및 활용을 통해 기술상업화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한다. 그 전략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활용한다 (Baum et al., 2000). Zhao and Aram(1995)은 네트워크 다양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이를 지지하고 있다. Koka and Prescott(2002)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소공인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유의한 0.315($p \leq 0.010$)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협력 형태의 거래관계는 서로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한정된 범위가 아닌 필요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이고(Henderson, 1990), 두 개의 독립적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로 의존하고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이다(Mohr and Spekman, 1994). 이는 거래기업들이 현재와 미래의 성과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소기업의 구성원들이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며,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존관계가 증가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이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인다.

4.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매개효과 분석(경영성과)

순번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값	p 값	검증 결과
1	심리적 특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	0.056	0.144	0.914	0.412	기각
2	심리적 특성 → 협력 → 경영성과	0.068	0.148	1.122	0.305	기각
3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	0.315***	0.146	2.912	0.000	채택
4	환경불확실성 → 협력 → 경영성과	0.324***	0.133	3.001	0.000	채택
5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	0.286**	0.138	2.488	0.013	채택
6	산업클러스터 특성 → 협력 → 경영성과	0.291**	0.142	2.518	0.016	채택
7	심리적 특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	0.012	0.153	0.725	0.568	기각
8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	0.348***	0.144	3.124	0.000	채택
9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	0.352***	0.146	3.217	0.000	채택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첫째,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0.012($p \geq 0.100$)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11> 경로분석(경영성과)의 심리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0.175($p \geq 0.100$)로 나타나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경로계수 0.187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0.348(p \leq 0.010)$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11> 경로분석(경영성과)의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0.248(p \leq 0.100)$ 로 나타나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경로계수 0.100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0.352(p \leq 0.010)$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11> 경로분석(경영성과)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0.235(p \leq 0.100)$ 로 나타나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로 인해 경로계수 0.117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불확실성,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공인의 네트워크, 협력 등의 매개변수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얼마나 더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문지법에 의한 리커트(Likert, 1961)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계처리가 가능한 유효표본 41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 등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장경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가업을 승계한 경우보다 창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소공인의 경영연수와 업력이 높아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매출규모가 적고 생계형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저마다 각기 다르고 주도적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소공인의 환경불확실성은 네트워크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공인이 새로운 경쟁우위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에 네트워크와 협력 등을 통해 자원의 새로운 조합과 창조를 이루고 경쟁상황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넷째,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특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공인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네트워크와 협력을 가져와 혁신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소공인의 네트워크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

공인이 공동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 노력하는 과정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간에 잘 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특성 → 협력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소공인 구성원들이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며,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존관계가 증가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하고도 신속한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협력이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환경불확실성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경영성과’는 경로계수가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불확실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 ‘산업클러스터 특성 → 네트워크 → 협력 → 경영성과’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양(+)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공인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공인과 소공인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업수준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나 소공인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여 비교 잣대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소기업, 중기업 등을 대상으로 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논거로 본 연구의 변수를 도입한 한계가 있어 소공인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남현, 류태모, 박봉규, 송경수와 정동섭(2001), “집단유능성, 집단동태성 및 집단성과간의 관계”, 2001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인사·조직학회, 261~271.
- 김성태와 노근호(2004), “지역혁신 클러스터 추정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응용경제, 6(2), 63~97.
- 김순태(2013),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 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양태(2015), “반월공업단지 뿌리산업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6), 1747~1763.
- 김종우와 이연택(2010), “관광클러스터특성, 협력 및 지역관광경쟁력 간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3(1), 405~425.
- 남윤형(2013), 도시형소공인 지원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류건우, 이재훈, 김영운(2001), “한국 주물소재 협동화사업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3(1), 227~253.
- 박우성과 박재용(2005), “네트워크 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9(1), 115~140.
- 서리빈, 성종수와 윤현덕(2012), “산업 클러스터 입주가 벤처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R&D 협력 네트워크와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3), 43~68.
- 정동섭과 정문섭(2005),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2(2), 77~89.
- 조봉현(2012),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과제”, 정책연구, 172, 141~173.
- 지용희, 이윤보와 한정화(1999), 중소기업론, 서울: 경문사.
- 최병훈과 조현석(2010), “산업클러스터와 혁신-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3), 109~136.
- 최태환과 윤병섭(2015), “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지역산업연구, 38(3), 135~167.
- 소상공인진흥원(2011), 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 이동근(2014),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2014), 도시형소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청(2015.4.1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25개로 확대 설치-‘15년 소공인 특화지구 18곳 신규 선정, 보도자료.

- Ardichvili, A., R. Cardozo and S. Ray(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 ~ 123.
- Barrick, M. R., G. L. Stewart, M. J. Neubert and M. K. Mount(1998), "Relating Member Ability and Personality to Work-Team Processes and Team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3), 377 ~ 391.
- Barry, B. and G. L. Stewart(1997), "Composition, Process, and Performance in Self-Managed Groups: The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62 ~ 78.
- Baum, J. R.(1994),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Vision, Motivation, and Strategy to Venture Grow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 Birley, S.(1988), "Female Entrepreneurs: Are They Really any Difference?", Forthcoming i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School Working Paper 5/87*,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 Cranfield, OAL, UK..
- Carlsson, G. and K. Karlsson(1970), "Age, Cohorts and the Generation of Gene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4), 710 ~ 718.
- Chakravarthy, B. S.(1982), "Adaptation: A Promising Metaphor for Strategic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7(1), 35 ~ 44.
- Covin, J. G. and D. P. Slevin(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 ~ 135.
- Crant, J. M.(2000), "Proactive Behaviou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6(3), 435 ~ 462.
- Frederick, H. H., Kuratko, D. F. and R. M. Hodgetts(2007),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7th ed., Nelson, Australia: Melbourne, Vic..
- Frohlich, M. T. and R. Westbrook(2001), "Arcs of Integration: An International Study of Supply Chain Strategi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19(2), 185 ~ 200.
- Gupta, M. D.(1987), "Selective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Children in Rural Punjab, Ind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1), 77 ~ 100.
- Hall, B. H., A. B. Jaffe and M. Trajtenberg(2005), "Market Value and Patent

- Citations", *Rand Journal of Economics*, 36(1), 16 ~ 38.
- Henderson, J. C.(1990), "Plugging into Strategic Partnerships: The Critical IS Connec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Magazine, Spring, April 15.
- Henderson, J. V.(2003), "Marshall's Scale Econom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3(1), 1 ~ 28.
- Hoegl, M. and H. G. Gemuenden(2001), "Teamwork Quality and the Success of Innovative Projects: A Theoretical Concept and Empirical Evidence", *Organization Science*, 12(4), 435 ~ 449.
- Jones, C., W. S. Hesterly and S. P. Borgatti(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911 ~ 945.
- Koka, B. R. and J. E. Prescott(2002), "Strategic Alliances as Social Capital: A Multidimensional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9), 795 ~ 816.
- Lamont, L. M.(1972), "What Entrepreneurs Learn from Experi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0, 36 ~ 41.
- Likert, R.(1961), *New Patterns of Management*, New York, NY, US.: McGraw-Hill.
- Lumpkin, G. T. and G. G. Dess(1995), "Simplicity as a Strategy-Making Process: The Effects of Stage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n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386 ~ 1407.
- Mathieu, J. E., T. S. Heffner, G. F. Goodwin, E. Salas and J. A. Cannon-Bowers(2000), "The Influence of Shared Mental Models on Team Proces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2), 273 ~ 283.
- Miller, D. and P. H. Friesen(1983), "Strategy-Making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3), 221 ~ 235.
- Mohr, J. and R. Spekman(1994),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Success: Partnership Attribut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2), 135 ~ 152.
- Nunnally, J. C., I. H. Bernstein(1994), *Psychometric Theory*, 3th ed., New York, NY, US.: McGraw-Hill.
-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NY. US.: Free Press.
- Porter, M. E.(1998), "Clusters and Competition: New Agenda for Companies,

- Governments and Institution", No. 134 in M. E. Porter(2008), *On Competition: Updated and Expanded Edition*, Harvard Business Book Series, Boston, US.: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 Sandberg, W. R. and C. W. Hofer(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 ~ 28.
- Sexton, D. L. and N. Bowma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 ~ 140.
- Shamir, B.(1990), "Calculations, Values, and Identities: The Sources of Collectivistic Work Motivation", *Human Relations*, 43(4), 313 ~ 332.
- Uzzi, B.(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 35 ~ 67.
- Watson, J.(2007),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6), 852 ~ 874.
- Zahra, S.(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 ~ 285.
- Zhao, L. and J. D. Aram(1995), "Networking and Growth of Young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5), 349 ~ 370.